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연구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Image

by Metaphoric Pictures of Occupation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백 은 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okwon University

Full Time Instructor : Baik, Eunjoo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및 해석

- I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image by metaphoric pictures of occupation. The sample consisted of 311 early childhood teachers in kindergarten or day-care center. Teachers were asked them to match their image of themselves as early childhood teachers with metaphoric pictures of occupation.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kindergarten teachers chose conductor, entertainer, nurse, sculptor, shopkeeper, animal trainer, judge by turns and day-care center teachers chose nurse, sculptor, conductor, entertainer, shopkeeper, judge, animal trainer by turns. Second, the reason for selecting the metaphoric pictures of occupation as their self-image was analyzed into 16 categories.

주제어(Key Words): 자아상(self-image), 영유아교사(early childhood teachers), 직업은유그림(metaphoric pictures of occupation)

I. 서 론

교사교육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자기이해(self understanding)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이

다. 교사의 자기이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교사의 자아존중감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 발달의 모델링 효과 내지는 지원을 한다는 점과 교사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재정립할 기회가 필요

Corresponding Author : Eunjoo Baik,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okwon University, 21 Mokwon-Gil, Seo-Ku, Taejeon, Korea
Tel: +82-42-829-7384 E-mail: ejbaik@mokwon.ac.kr

하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었다(Zehm, 1999). 교사의 자아는 학습자의 자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자기이해는 교직에 종사하는 동안의 태도와 신념, 가치를 정립해 가는데 중요하다. 교사가 학습자의 삶에 있어서 유력한 존재로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Borich(1999)는 교사 자신과 자신의 역할 그리고 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또한 교사의 자기이해를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이기도 함을 강조하였다. 즉 교사가 자신의 가치와 제한점을 알고 자신의 행동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자기이해에 관련된 연구들로는 교사의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아정체성, 자아상 등이 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된 태도, 판단, 가치의 총체에 대한 지각인 교사 자아개념(Kim, 1995),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교사의 신념과 효능감(Bandura, 1977), 자기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나 다른 사람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것으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로 정의되는 자아정체성(Beijaard, 1995), 그리고 자신의 기준, 신념, 목표에 속하는 가치들로부터 형성되어 자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교사의 자아상(Borich, 1999)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성취, 사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송인섭, 1998; 淺田, 2004; Burns, 1982; Crane, 1974; Trowbridge, 1973). 이 중에서 교사의 자아상은 교사 자신이 스스로를 지각하는 방식과 사회에서 기대되는 자신들의 역할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이러한 자아상은 교수전략과 학급에서의 교사의 행동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Combs, Blume, Newman, & Wass, 1974).

교사의 자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 송인섭(1998)은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평가에 따른 변화, 반응에 대한 경향성의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먼저, 인지적 요소는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며 이는 객관적인 증명이나 주관적인 옳고 그름에 관계없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정의적 요소는 인지적인 요소의 상황과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교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며 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해 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자아상의 구성 요소는 교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평가에 따른 변화와 반응에 대한 경향성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형성된 자아상을 유지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지적 요소의 관점으로 유아교사의 자아상을 본다면 이는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교직 특성이나 유아교사의 자질 및 역할 등을 기초로 하는 유아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러 다양한

유아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인식이 곧 유아교사가 자아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정현숙, 2002).

교사교육 분야에서 유아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의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으며(배소연, 2002), 이에 따라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다양한 범주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Spodek(1985)은 유아교사의 역할을 양육역할, 교수역할, 관련적 역할로 구분하였으며, 유아교사는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podek, Saracho, & Pertes, 1998). 유아교사는 이와 같은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교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유아교사의 자아상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현숙, 2002).

유아교사의 자아상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임승렬(2003)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사회적 평가, 교사의 태도, 교사의 자질, 역할 및 능력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류칠선(1995)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발 지향형, 사회적·환경적 요소 추구형, 내적 만족 지향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자아상 유형을 연구한 정현숙, 이지현 그리고 임승렬(2002)은 예비교사 시기에서 교직 초임기까지 교사들은 전통적 교사상 추구형, 유아중심형-정의적 역할형, 자기발전지향형, 유아중심 교육실천형, 정의적 역할 실천형, 거부적 상황에 대한 민감형, 반성적 태도형, 환경 순응형, 거부형 등과 같은 자아상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아교사의 자아상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방법은 의미변별법이나 교사 면접 혹은 저널쓰기에 의한 것으로써 자아상의 유형을 밝혀내거나 범주화된 자아상의 내용에 대해 교사들이 지닌 긍정·부정의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교사의 자아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방법은 이 외에도 은유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Inbar(1996)의 연구에서 교사 및 교장·교감들은 반수 이상이 교사의 이미지에 대해 ‘듣는 귀’, ‘기댈 수 있는 어깨’, ‘보호하는 나무’와 같은 은유를 하고 있다. 특히, 직업 은유의 방법을 통해 교사의 자아상을 연구한 Armon, Shani, 그리고 Zeiger(1999)는 교사들이 자아상에 대해 학습자의 성장을 돋는 ‘정원사’, 학습자의 마음의 틀을 만드는 ‘도예가’, 학급 안에서 자연스럽게 개별 아동과 학급 전체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가르치는 일 고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에 상응하는 직업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사 자아상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된 이와 같은 것

들이 문자에 의한 것이라면 1990년이래로 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필름, 만화, 그림, 은유 그림 등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은유 그림은 문자로는 쉽게 표현되지 않는 생각이나 무드를 드러내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활용되고 있다 (Jolly, Zhi, & Thomas, 1998; Weber & Mitchell, 1995; 1999; Wubbels, 1992). 교사의 자아상을 은유 그림에 부합시켜보는 것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이미지를 구체화할 기회와 교사들이 일상 경험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아상 연구에 있어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Ben-Peretz, Mendelson, & Kron, 2003). 또한 교사 자아상을 위해 사용되는 은유 그림은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 교사의 자아상을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변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Weber & Mitchell, 1995; 1999; Worfel, 2004; Wubbels, 1992)에서 교사의 자아상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써만이 아니라 교사의 자아상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도구로써도 사용될 수 있다.

교사의 자아상은 교사 자신의 교육적 이론과 실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때때로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구조적인 그 무엇(Weber & Mitchell, 1995)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번 형성된 교사상은 교사들로 하여금 그 이미지에 담긴 한 가지의 역할모델만을 고집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다양한 교수 실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 부적절하게 작용될 수 있다(Goddard & Foster, 2001). 이러한 교사상은 교직 기간 동안 변화되기 쉬운 것이 아니다(Hannay, 1996).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며 기억작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기억되어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여러 다른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본다(水島, 藤岡, 土沼, 1989). 따라서 교직기간 동안 교사의 교수실제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자아상은 쉽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다른 이미지로의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아교사의 자아상은 교사교육 과정이나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은유그림을 활용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자아상은 학생시절에 만난 교사나 가족 구성원 중의 교사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거나(Hannay, 1996) 어린 시절의 경험, 양성교육과정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들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기도 한다(Wang, 1998). 또한 교육현장에서 만난 원장·원감,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따

라 보다 긍정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Friedman & Farry, 1992), 현재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교수 상황 혹은 학교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Beijaard, Verloop, & Vermunt, 2000; Brown & McIntyre, 1992).

교수 상황과 교사 자아상과의 관련성을 본 Ben-Peretz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지닌 자아상으로서 동일한 ‘돌봄’의 이미지를 지녔다하더라도 교사가 담당한 학급의 학업 수준에 따라 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사가 담당한 학급의 학업수준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지지나 민감한 보살핌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미지를 지니게 된 것이라면, 담당학급의 학업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가 전문성이 결여된 돌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는 것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아상을 본 조수재(2006)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자아상이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남교사보다는 여교사가,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더욱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렬(2003)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아상은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사의 자아상은 교수 전략이나 학급에서의 행동, 나아가 학습자의 자아 발달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찰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유아교사가 자아상을 분명하게 인식해 가는 과정은 반성적인 태도로 실천적인 지식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정현숙, 2002)에서 유아교사가 전문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접근 방법의 하나로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유아교사의 자아상이 교수 상황 혹은 학교 문화, 교직 입문전후의 개인적, 전문적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분야에서 교육대상의 범위가 다르며 설립 배경의 차이를 지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아상을 경력, 학력, 결혼 유무, 담당학급 연령과 같은 교사 내외적인 배경요인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봄으로써 두 기관유형의 교사들이 지향하거나 실제 인식하는 유아교사의 자질 및 역할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아교사의 자아상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직업은유그림을 활용하였을 때, 교사들의 자아상을 긍정·부정이나 특정 유형을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교사가 지향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유아교사의 역할이나 신념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거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은 어떠한가?

〈표 1〉 연구대상 교사의 배경

N(%)

배경	구분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전체
경력	6년미만	65(61.3)	159(77.6)	224(72.0)
	6년이상	41(38.7)	46(42.4)	87(28.0)
학력	고졸	0(0.0)	137(66.8)	137(44.1)
	2,3년제 대졸	46(43.4)	50(24.4)	96(30.9)
	4년제 대졸	60(56.6)	18(8.8)	78(25.0)
결혼유무	기혼	45(42.5)	152(74.1)	197(63.3)
	미혼	61(57.5)	53(25.9)	114(36.7)
담당학급연령	만0~2세	0(0.0)	81(39.5)	81(26.0)
	만3,4세	45(42.5)	99(48.3)	144(46.3)
	만5세	61(57.5)	25(12.2)	86(27.7)
전체		106(100.0)	205(100.0)	311(100)

둘째, 영유아교사가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자아상별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아상은 배경요인(근무기관유형, 경력, 학력, 결혼유무, 담당학급연령)별로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치원 자격연수 및 보육교사 보수·승급교육, 교육대학원 강의에 참여한 대전과 충청남북도 지역의 유치원 교사 및 보육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348부(회수율 77.3%)이었으며 이 중, 무성의한 응답으로 판명되거나 정보 누락 및 부적절한 대상의 37부를 제외한 총 311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 기간은 2006년 7월 하순에서 10월 초순까지였다. 연구대상 교사의 배경을 경력, 학력, 결혼유무, 담당학급연령에 대해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별로 나타낸 것은 〈표 1〉과 같다. 고졸(1년제 보육교사 교육원졸업) 학력과 0~2세 담당학급연령의 연구대상은 보육교사만 해당된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직업명과 함께 직업은유그림 7가지가 포함된 질문지이다. 직업은유그림에 대해서는 7가지 중, 교사로서의 자아상에 가장 부합하는 한 가지 그림을 선택하게 한 다음,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직업은유그림은 Ben-Peretz *et al.*,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휘자’, ‘인형조정자’, ‘동물사육사’, ‘동물조련사’, ‘상인’, ‘서비스 사회자’, ‘판사’의 직업은유그림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지휘자’는 집단과 개인 모두를 책임을 가지고 어우러지게 하는 수행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인형조정자’는 지휘자와 유사하지만 인형들을 복종시키는 또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동물사육사’는 돌보는 역할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동물조련사’는 훈련생의 의도나 기호를 고려함 없이 어떤 행위를 달성하고자 상과 별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상인’은 좋은 상품을 파는 교육의 전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사회자’는 학습자가 전력투구하지 않더라도 행복해 질 수 있게 해 주는 교사의 역할로 지각되고 있었고, ‘판사’는 권위와 강직한 규칙, 판단을 하는 교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유아교사의 자아상을 결정짓는 교사의 자신에 대한 지식은 교사의 역할 및 자질 등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한다(송인섭, 1998; 정현숙, 2002). 이러한 점에서 Ben-Peretz *et al.*, (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7가지 직업군은 유아교사가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자신들이 인식하는 교사 역할 및 자질에 대한 선행연구(Spodek, 1985;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사의 자아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직업은유그림을 디자인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림체로 바꾸었으며, 그림의 성별은 영유아교사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하여 여성으로 표현하였다.

예비조사는 그림체, 질문의 적절성,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20명의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교사들은 ‘인형조정자’ 직업은유그림에 대하여 교사가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에는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줄 인형에 대하여는 유아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유아들이 그 인형들에 빗대어 져서 인형처럼 조정되어지는 것으로의 두 가지 대별되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직업은유그림과는 달리 교사 외의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은유로 인해 교사 자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사들의 반응과 선행연구(Arnon et al., 1999)를 토대로 ‘인형 조정자’의 손에 의해 인형이 조정되며 역할을 해 내는 것과 유사하게, ‘조각가’의 손끝에서 돌덩어리가 다듬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인형조정자’를 ‘조각가’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동물사육사’와 ‘동물조련사’의 두 직업은유그림에 대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사들은 동물들을 보살피며 훈련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의 직업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여서 이 두 가지를 차별되는 직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Ben-Peretz et al., (2003)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동물사육사’는 돌보는 역할, ‘동물조련사’는 훈련의 역할로 지각한 것에 기초하고, 예비조사 대상 교사들의 반응과 선행연구(Arnon et al., 1999)를 토대로 ‘동물사육사’를 돌보는 역할로써 가장 뚜렷하게 은유되는 직업의 ‘간호사’로 수정하였다. 또한 ‘동물조련사’의 그림은 웃는 표정으로 인해 ‘동물사육사’의 보살피는 역할과 중복된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표정을 더욱 염격한 것으로 강조하여 상과 벌을 통한 훈련의 느낌이 보다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인’은 시식코너의 배경이 요리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있다는 교사들의 지적에 따라 통조림을 권유하는 배경 그림으로 바꾸었다.

수정된 직업은유그림에 대하여 연구자 외 1인의 영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2차 예비조사를 본조사의 대상이 아닌 10명의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사회자’는 우리나라의 현 실생활에서 보다 친숙한 ‘오락프로 MC’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7가지 직업은유그림은 ‘조각가’, ‘간호사’, ‘지휘자’, ‘상인’, ‘동물조련사’, ‘오락프로MC’, ‘판사’이며, 문미에 제시한 <그림 1>에서 <그림 7>과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질문자는 교사의 기초 배경 란에 기입을 한 뒤, 7가지 그

림 중에 교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한 가지 그림을 선택하고, 선택한 그림 옆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절차로 교사들에게 제시되었다. 질문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시간은 5~20분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 2인 직업은유그림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영유아교육 전문가 1인이 먼저, 각자 내용을 읽어보면서 영역 분석을 하였고, 다음으로 분류된 영역에 대한 자료를 두 사람이 함께 검토하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류체계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영역을 타 영역에 포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영역과 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로써 각 영역에 해당하는 응답된 내용을 각자 분류한 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분류한 내용에 대해 재검토하며 다소 상이한 부분은 상의 하에 조율하였다. 분류된 영역에 영유아 교사들의 선택 이유를 코딩 한 평정자간 조율되기 전 일치도는 .89였다. 연구문제 1과 3인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직업은유그림을 선택한 영유아교사의 빈도와 백분율을 전체 및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경력, 학력, 결혼유무, 담당학급연령별로 구하였다. 범주화된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전체 영유아교사가 현재 교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빈도와 백분율은 <표 2>와 같다.

<표 2>과 같이 전체 영유아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자아상은 간호사(33.1%), 지휘자(21.5%), 조각가(15.8%), 오락프로MC(14.5%), 상인(6.8%), 동물조련사(4.2%), 판사(4.2%)의 순이었다.

2. 영유아교사가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자아상별 근거

영유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한 가지 직업은유그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

<표 2> 전체 영유아 교사의 직업은유그림 선택의 빈도 및 백분율

N(%)

자아상	간호사	지휘자	조각가	오락프로MC	상인	동물조련사	판사	전체
N	103	67	49	45	21	13	13	311
(%)	(33.1)	(21.5)	(15.8)	(14.5)	(6.8)	(4.2)	(4.2)	(100.0)

〈표 3〉 영유아교사가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자아상별 근거

자아상	선택 이유의 범주화된 내용	N(%)
간호사	• 사랑으로 보살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나	68(21.8)
	• 안전, 건강, 문제행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나	28(9.0)
	•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나	7(2.3)
지휘자	•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학급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가는 나	45(14.4)
	• 리더로서 전체를 통솔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나	22(7.1)
조각가	•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해 가는 나	21(6.8)
	•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	15(4.8)
	• 전력을 다해 교육하며 아이들의 미래 모습을 기대하는 나	13(4.2)
오락프로 MC	•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나	32(10.3)
	• 철저한 사전준비와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미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나	13(4.2)
상인	• 항상 밝은 태도로 다가가고 영유아 및 학부모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나	15(4.8)
	•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돋는 나	6(1.9)
동물 조련사	• 상과 벌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아이들을 훈련하는 나	8(2.6)
	• 사랑으로 보살피며 아이들과 상호 교감을 하고 있는 나	5(1.6)
판사	• 아이들 간의 중재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나	8(2.6)
	•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나	5(1.6)
전체		311(100.0)

술한 것을 범주화한 내용과 빈도 및 백분율은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영유아 교사가 각각의 직업은유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간호사와 조각가가 3가지로, 지휘자와 오락프로MC, 상인, 동물조련사, 판사는 2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다. 자아상별 선택 이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영유아교사들이 간호사 그림을 자아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랑으로 보살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나’, ‘안전, 건강, 문제행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나’,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나’의 세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사랑으로 보살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은유그림에서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과 같이 물리적으로 안아주는 장면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수용하여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따스함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연상되므로”, “영아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노력하니까”와 같은 응답이었다.

‘안전, 건강, 문제행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를 하듯이 영유아교사도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을 점검하고 문제 행동을 진단하여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용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대해 많이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어서 건강문제의 비중이 가장 커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사명감이나 혼신이 없이 간호사의 일을 수행하기 어렵듯이 영유아교사도 그러한 사명감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이 보람차고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즐겁기 때문”과 같은 응답이었다.

2) 지휘자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영유아교사들이 지휘자 그림을 자아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학급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가

는 나’, ‘리더로서 전체를 통솔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두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학급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가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아이들 각자가 지닌 특성을 이해하여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아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성을 존중하기 위해 각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체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하고 있기 때문”, “각자의 개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서”, “개인을 중시하되 모두를 보고자 하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리더로서 전체를 통솔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음악이 지휘자에 따라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휘자의 역할이 막중하듯 영유아교사인 나에 의해 학급 전체가 영향을 받고 통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휘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나의 색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고 있으므로”, “교사가 하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과 같은 응답이었다.

3) 조각가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영유아교사들이 조각가 그림을 자아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해 가는 나’,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 ‘전력을 다해 교육하며 아이들의 미래 모습을 기대하는 나’의 세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해 가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조각가가 조각물의 특성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조각할 것인지 고민하며 생각한 것을 표현해 내듯이 영유아교사는 아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의 개성 및 특성을 살려서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므로”, “아이들 각각의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으므로”, “아이들을 교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 만들어가기 때문에”와 같은 응답이었다.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조각물이 조각가의 손에 의해 전혀 다른 형태를 드러내듯이 영유아교사의 역할이 아이들의 발달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내 손 끝에 따라 여러 다른 모양의 조각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내가 조각해 가는대로의 방향으로 모습을 이루어가므로”, “백지의 아이들을 내가 다듬어 가는 것이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전력을 다해 교육하며 아이들의 미래 모습을 기대하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조각가가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그의 열과 성을 다해 임하며 완성된 후의 것을 보면 가슴 벅차하듯이 영유아교사도 모든 열의를 다해서 교육에 임하고 아이들의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단히 노력하는 조각가의 모습, 언젠가 완성되는 조각품을 기대하는 마음이 나와 비슷해서”, “땀 흘리고 난 뒤의 성취감이 교사인 내 모습 같아서”, “신중하게 여러 번 생각하며 어떻게 다듬어 갈지를 생각하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4) 오락프로MC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영유아교사들이 오락프로MC 그림을 자아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나’, ‘철저한 사전준비와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미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나’의 두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 즐겁고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과 늘 즐겁게 상호작용하므로”,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 “아이들에게 늘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미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교육활동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의 흥미가 지속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활동 목표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행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기 때문”, “모든 아이들에게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을 이끌어가려고 하므로”,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아이들이 가진 생각을 내어놓게 하고 있으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5) 상인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영유아교사들이 상인 그림을 자아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항상 밝은 태도로 다가가고 영유아 및 학부모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나’,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돋는 나’의 두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항상 밝은 태도로 다가가고 영유아 및 학부모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교육을 상품에 빗대어 이를 아이들에게 팔기 위하여 영유아 혹은 학부모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밝은 표정으로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상냥하게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해야 하므로",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등을 친절을 바탕으로 서비스한다고 생각하므로", "사람을 상대하며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돋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아이의 흥미, 요구,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제공되는 교육을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사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와 느낌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에 적절한 것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가장 좋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두고자 하기 때문"과 같은 응답이었다.

6) 동물조련사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영유아교사들이 동물조련사 그림을 자아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상과 벌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아이들을 훈련하는 나', '사랑으로 보살피며 아이들과 상호 교감을 하고 있는 나'의 두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상과 벌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아이들을 훈련하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아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칭찬과 벌 등의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을 경험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칭찬과 벌을 하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제재와 보상을 통해 지도하기 때문",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신변처리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하므로"와 같은 응답이었다.

'사랑으로 보살피며 아이들과 상호 교감을 하고 있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동물을 상대로 할 때에도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사랑으로 보살피며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훈련이 가능하듯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과 교감하며 목표를 이루어내고자 하기 때문", "백지 상태의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육하고 있기 때문", "아이들을 사랑을 돌보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과 같은 응답이었다.

7) 판사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

영유아교사들이 판사 그림을 자아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 간의 중재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나',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나'의 두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아이들 간의 중재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아이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판단해 주는 역할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기 때문", "아이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으므로", "아이들 간의 싸움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와 같은 응답이었다.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은,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교사 자신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기 때문", "편애하면 아이들도 알아차리고 나를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 "선생님이 공평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화를 내고 나 역시도 괴롭기 때문"과 같은 응답이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영유아교사들은 제시된 직업은유그림에서의 직업특성을 교육의 측면과 결부하면서, 자신이 현재 주로 실시하고 있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할을 자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자아상

1)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유치원 교사의 자아상

유치원 교사가 현재 교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빈도와 백분율을 경력, 학력, 결혼유무, 담당학급연령별로 나타낸 것은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전체 유치원 교사가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자아상은 지휘자(35.8%), 오락프로MC(16.0%), 간호사(15.1%), 조각가(12.3%), 상인(9.4%), 동물조련사(6.6%), 판사(4.7%)의 순이었다. 경력에 있어서는 6년 미만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8.5%), 간호사(18.5%), 상인 및 오락프로MC(각 10.8%)의 순으로 많았으며, 6년 이상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1.7%), 오락프로MC(24.4%), 조각가(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2,3년제 대졸의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9.1%), 오락프로MC(17.4%), 상인(13.0%)의 순으로 많았으며, 4년제 대졸의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3.3%), 간호사(23.3%), 조각가 및

〈표 4〉 유치원 교사의 직업은유그림 선택 빈도 및 백분율

N(%)

자아상		조각가	간호사	지휘자	상인	동물조련사	오락프로MC	판사	전체
경력	6년미만	5(7.7)	12(18.5)	25(38.5)	7(10.8)	5(7.7)	7(10.8)	4(6.2)	65(100.0)
	6년이상	8(19.5)	4(9.8)	13(31.7)	3(7.3)	2(4.9)	10(24.4)	1(2.4)	41(100.0)
학력	2,3년제 대졸	4(8.7)	2(4.3)	18(39.1)	6(13.0)	5(10.9)	8(17.4)	3(6.5)	46(100.0)
	4년제 대졸	9(15.0)	14(23.3)	20(33.3)	4(6.7)	2(3.3)	9(15.0)	2(3.3)	60(100.0)
결혼유무	기혼	4(8.9)	7(15.6)	17(37.8)	5(11.1)	3(6.7)	8(17.8)	1(2.2)	45(100.0)
	미혼	9(14.8)	9(14.8)	21(34.4)	5(8.2)	4(6.6)	9(14.8)	4(6.6)	61(100.0)
담당학급연령	만3,4세	6(13.3)	11(24.4)	17(37.8)	3(6.7)	1(2.2)	5(11.1)	2(4.4)	45(100.0)
	만 5세	7(11.5)	5(8.2)	21(34.4)	7(11.5)	6(9.8)	12(19.7)	3(4.9)	61(100.0)
전체		13(12.3)	16(15.1)	38(35.8)	10(9.4)	7(6.6)	17(16.0)	5(4.7)	106(100.0)

오락프로MC(각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의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7.8%), 오락프로MC(17.8%), 간호사(15.6%)의 순으로 많았으며, 미혼의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4.4%), 조각가(14.8), 간호사 및 오락프로MC(각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학급연령에 있어서는 만 3,4세 학급 담임의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7.8%), 간호사(24.4%), 조각가(13.3%)의 순으로 많았으며, 만 5세 학급 담임의 유치원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지휘자(34.4%), 오락프로MC(19.7%), 조각가 및 상인(각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가 자아상에 부합하는 직업은유그림으로 가장 덜 선택한 것은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의 경우 판사와 동물조련사였으며, 2,3년제 대졸의 유치원 교사와 만 5세 학급 담임의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만 간호사와 판사를 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보육 교사의 자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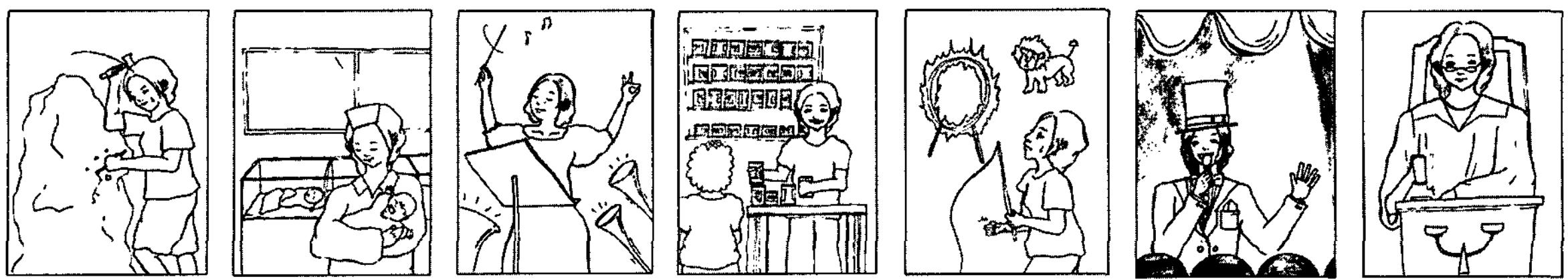
보육 교사가 현재 교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빈도와 백분율을 경력, 학력, 결혼유무, 담당학급연령별로 나타낸 것은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전체 보육 교사가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의 자아상은 간호사(42.4%), 조각가(17.6%), 지휘자(14.1%), 오락프로MC(13.7%), 상인(5.4%), 판사(3.9%), 동물조련사(2.9%)의 순이었다. 경력에 있어서는 6년 미만과 6년 이상의 보육 교사 모두가 간호사(45.3%와 32.6%), 조각가(15.7%와 23.9%), 지휘자(13.2%와 17.4%) 및 오락프로MC(17.4%)의 순으로 직업은유 그림을 선택하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과 2,3년제 대졸의 보육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간호사(45.3%와 36.0%), 조각가(15.3%와 24.0%), 오락프로MC(14.6%와 16.0%)의 순으로 많았으며, 4년제 대졸의 보육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유그림은 간호사(38.9%), 지휘자

〈표 5〉 보육 교사의 직업은유그림 선택 빈도 및 백분율

N(%)

자아상		조각가	간호사	지휘자	상인	동물조련사	오락프로MC	판사	전체
경력	6년미만	25(15.7)	72(45.3)	21(13.2)	9(5.7)	6(3.8)	20(12.6)	6(3.8)	159(100.0)
	6년이상	11(23.9)	15(32.6)	8(17.4)	2(4.3)	0(0.0)	8(17.4)	2(4.3)	46(100.0)
학력	고졸	21(15.3)	62(45.3)	19(13.9)	8(5.8)	4(2.9)	20(14.6)	3(2.2)	137(100.0)
	2,3년제 대졸	12(24.0)	18(36.0)	6(12.0)	1(2.0)	0(0.0)	8(16.0)	5(10.0)	50(100.0)
	4년제 대졸	3(16.7)	7(38.9)	4(22.2)	2(11.1)	2(11.1)	0(0.0)	0(0.0)	18(100.0)
결혼유무	기혼	28(18.4)	69(45.4)	19(12.5)	10(6.6)	3(2.0)	17(11.2)	6(3.9)	152(100.0)
	미혼	8(15.1)	18(34.0)	10(18.9)	1(1.9)	3(5.7)	11(20.8)	2(3.8)	53(100.0)
담당학급연령	만0~2세	8(9.9)	42(51.9)	9(11.1)	7(8.6)	3(3.7)	10(12.3)	2(2.5)	81(100.0)
	만3,4세	20(20.2)	37(37.4)	16(16.2)	3(3.0)	3(3.0)	15(15.2)	5(5.1)	99(100.0)
	만 5세	8(32.0)	8(32.0)	4(16.0)	1(4.0)	0(0.0)	3(12.0)	1(4.0)	25(100.0)
전체		36(17.6)	87(42.4)	29(14.1)	11(5.4)	6(2.9)	28(13.7)	8(3.9)	205(100.0)



〈그림 1〉 조각가

〈그림 2〉 간호사

〈그림 3〉 자취자

〈그림 4〉 상인

〈그림 5〉 동물조련사

〈그림 6〉 오락프로 MC

〈그림 7〉 판사

(22.2%), 조각가(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의 보육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 유그림은 간호사(45.4%), 조각가(18.4%), 지휘자(12.5%)의 순으로 많았으며, 미혼의 보육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 유그림은 간호사(34.0%), 오락프로MC(20.8%), 지휘자(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학급연령에 있어서는 만 0~2세 학급 담임의 보육 교사들이 선택한 직업은 유그림은 간호사(51.9%), 오락프로MC(12.3%), 지휘자(11.1%)의 순으로 많았으며, 만 3,4세 학급 담임의 보육 교사는 간호사(37.4%), 조각가(20.2%), 지휘자(16.2%), 만 5세 학급 담임의 보육 교사들은 간호사 및 조각가(각 32.0%), 지휘자(16.0%)의 순으로 직업은 유그림을 선택하였다. 보육 교사가 자아상에 부합하는 직업은 유그림으로 가장 덜 선택한 것은 대체로 판사, '동물조련사', '상인'이었다.

대한 시대 혹은 사회 전반에 흐르는 무드의 차이이거나 교육 대상의 연령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유아교사들은 선행연구(Arnon et al., 1999; Inbar, 1996)와 유사하게 '판사'나 '동물조련사'의 자아상을 상대적으로 덜 선택하였는데, 이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거부는, 긍정적인 선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Ben-Peretz et al., 2003)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영유아교사들은 '판사'나 '동물조련사'와 같이 판단하고 조정하며 훈련하는 교사의 역할을 덜 선호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각각의 직업은 유그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자아상은 보살핌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 이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었으며, '지휘자'의 자아상은 개별 영유아와 학급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가거나, 교사로서의 리더의 영향력을 절감하는 것이었다. '조각가'의 자아상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상을 그리며 교육하고 있는 것이고, '오락프로MC'의 자아상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며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흥미를 자아내고자 사전 준비에 힘을 쓰는 것이었다. '상인'의 자아상은 항상 밝은 태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반응에 민감하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되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것이며, '동물조련사'는 상과 벌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상호교감이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판사'의 자아상은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 간의 중재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자아상은 교사가 지닌 기준이나 신념, 목표에 속하는 가치로부터 형성된 것(Borich, 1999)이며, 여러 다양한 유아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인식이 곧 유아교사가 자아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정현숙,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업은 유그림을 사용하여 영유아 교사의 자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유아 교사들이 선택한 각 직업은 유그림의 비율과 직업은 유그림 중의 한 가지 그림을 선택한 이유,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배경변인별 자아상 선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은 유그림에 의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자아상은 전체적으로, '간호사', '지휘자', '조각가', '오락프로MC', '상인', '동물조련사', '판사'의 순이었다. 직업은 유그림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간호사', '지휘자', '조각가'에 대한 선택 반응 비율이 높으며, '동물조련사', '판사'에 대한 선택 반응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초중등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반응(Ben-Peretz et al., 2003)과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서커스 사회자'와 유사한 맥락의 직업으로 선택된 '오락프로MC'에 대한 선택 반응 비율이 유아교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직업에

2002). 이러한 점에서 각각의 직업은유그림에 대해 영유아교사가 진술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영유아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의 신념이나 가치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향하거나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Arnon et al., 1999; Ben-Peretz et al., 2003; Inbar, 1996)에서 사용된 직업은유에 내포된 의미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은유그림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간호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 직업이 '동물사육사'와 '정원사'이다. 이것들은 돌봄과 성장을 돋는 직업 특성의 면에서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살핌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것이 교사로서의 보람이 된다고 하는 보다 교육의 궁극적인 가치를 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학습자의 마음의 틀을 만드는 '도예가'나 학습자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인형조정자'와 같은 직업이 본 연구의 '조각가'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데,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직업특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사로서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유아기의 교육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며, 영유아교사 자아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상인'의 자아상에 대해 Ben-Peretz et al. (2003)은 좋은 상품을 파는 교육의 전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밝은 태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일상의 교사의 태도와 교육의 전수가 일방향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반응에 늘 민감하고자 한다고 하는 양방향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면이 부각되고 있다.

'동물조련사'는 어떤 목표하는 행위를 달성하고자 상과 벌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교육대상의 의도나 기호를 고려함 없이 실시하는 것(Ben-Peretz et al., 2003)이 아니라 교사와 아이들이 상호 교감하는 것이 훈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의 '동물조련사'의 자아상 이미지의 새로운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오락프로MC'는 학습자가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잠시 동안 행복해 질 수 있게 해 주는 이미지의 '서커스 사회자'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 직업인데, 이것 또한 교육대상자인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수동적으로 누리기보다는 그들의 흥미가 반영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영유아교사들이 가치를 두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집단과 개인 모두를 책임을 가지고 어우러지게 하는 수행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지휘자'에 대한 이미지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공평하게 대하여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판사'의 이미지는 선행 연구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러 직업군에 대한 영유아교사 자아상의 내용을 통해 유아교사들은 영유아들을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양방향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교육의 신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의미변별법에 의한 교사 자아상 연구(이학주, 2000; 임승렬, 2003)가 교사의 특성을 형용사군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가치나 신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 즉 문자로는 쉽게 표현되지 않는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직업은유그림에 의한 연구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직업은유그림의 선택 비율에 있어서 전체 및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치원 교사는 '지휘자'가 가장 높았으며, 보육 교사는 '간호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력, 학력, 결혼유무, 담당학급 연령에 관계없이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개별 영유아와 학급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가거나, 교사로서의 리더의 영향력을 절감하는 '지휘자'로서의 교사 역할이라면, 보육 교사의 경우에는 보살핌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 이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과 같은 '간호사'로서의 교사 역할과 자질을 가장 지향하거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각각의 배경변인별 직업은유그림의 선택 비율은, 가장 많이 선택된 유치원 교사의 '지휘자'와 보육 교사의 '간호사'의 자아상을 제외한 나머지 순위에 대하여 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 각각이 다소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연구 대상자의 편중된 비율 등으로 인해 통계적인 유의차를 밝힐 수는 없었다.

교사상은 많은 경우에 교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교수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며(Beijaard et al., 2000; Brown, McIntyre, 1992), 교사의 자아상은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준, 신념, 목표에 대한 가치들로부터 형성된다 (Borich, 1999)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는 '지휘자'를, 어린이집이라는 교육기관에서는 '간호사'라는 교사 역할과 자질을 가장 지향하거나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음을 영유아교사들의 자아상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보다 장시간동안, 보다 양질의 교육·보

육을 영유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기존의 이분화 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교사 자신의 인식 변화 또한 재고해 보아야 함을 시사해 준다. 즉 유치원 교사에게 있어서는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에 대한 보살핌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거나 안전과 건강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 중의 하나이며, 보육 교사에게 있어서는 교사가 담당한 한 학급 영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급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 중의 하나임을 지금 이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교육 과정부터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각각의 접근이 아닌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영유아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질은 어느 한두 가지에 집중 되기보다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여러 역할과 자질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교사가 주지할 수 있도록 직전교육에서부터 현직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자아상 점검 및 반성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은유그림 중에서 한 가지 그림을 선택하고, 선택 이유를 기술하게 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자아상 및 자아상의 근간을 이루는 교사의 가치, 신념 혹은 지향되거나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 역할 및 자질에 대해 개괄해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교사 자아상에는 한 가지 유력한 역할 모델만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한 가지 역할만을 고집하는 것도 교수 실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은유그림을 사용하여 보다 다면적인 교사의 자아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수의 편중으로 인해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는 여러 다양한 교사 내외적 변인간의 차이나 영향력을 고찰해 봄으로써 영유아 교사들의 자아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보다 바람직한 자아상을 구축해 가기위한 폭넓은 자료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은유그림에 의해 유아교사의 자아상을 이끌어내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후속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아상을 반성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아상을 변화, 발전시켜 감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교사 자아상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실제적인 교사교육의 측면에 대해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정(1995). 유아 및 아동의 자아개념 고양을 위한 이론적 모색. *교육발전*, 15(3), 1-23.
- 류칠선(1995). 유치원 교사의 교사 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유아교육연구*, 16(2), 125-141.
- 배소연(2002). 4년제 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연구: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박은혜, 배소연, 이정숙, 임승렬, 조부경, 조운주, 조형숙, 황보영란. *유아 교사 교육의 최근 연구 동향* (pp. 88-12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1995).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
- 이학주(2000). 의미변별법으로 측정한 교사의 자아상. *한국교사교육*, 17(1), 183-205.
- 임승렬(2003). 유아교사의 자아상 연구: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32, 121-141.
- 정현숙(2002). 예비 및 초임 유아교사의 교사로서의 자아상 형성 과정. *전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이지현. 임승렬(2002). 유아교사의 자아상 유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4), 201-227.
- 조수재(2006). 초등학교 교사의 자아상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상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淺田匡 (2004). 教師の自己理解. 淺田匡, 生田孝至, 藤岡完治(編著). 成長する教師: 教師學への誘い (pp. 244-255). 東京: 金子書房.
- 水島惠一, 藤岡喜愛, 土沼雅子(1989). イメージの人間學. 東京: 誠信書房.
- Arnon, R., Shani, M., & Zeiger, T.(1999). *Teacher thinking about their profession*. Tel Aviv: Beit Berl College.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ijaard, D.(1995). Teachers' prior experiences and actual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 281-294.
- Beijaard, D., Verloop, N., & Vermunt, J. D.(2000). Teachers'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An exploratory study from a personal knowledge perspectiv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6, 749-764.
- Ben-Peretz, M., Mendelson, N., & Kron, F. W.(2003).

- How teachers in different educational contexts view their rol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 277-290.
- Borich, G. D.(1999). Dimensions of self that influence effective teaching. In R. P. Lipka, & T. M. Brinthaupt, *The role of self in teacher development* (pp. 92-117). New York: Macmillan.
- Brown, S., & McIntyre, D.(1992). *Making sense of teaching*.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Burns, R.(1982). *Self-concept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 Combs, A. Blume, R. A., Newman, A. J., & Wass, H. L.(1974).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teachers: A humanistic approach to teacher prepar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Crane, C.(1974). Attitude towards acceptance of self, others and adjustment to teach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4(1), 31-36.
- Friedman, I. A., & Farry, B. A.(1992). Professional self-concept as a predictor of teacher burnout. *Journal of Educational Reserch*, 86(1), 28-36.
- Goddard, J. T., & Foster, R. Y.(2001). The experiences of neophyte teachers. A critical constructivist assessmen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3), 349-365.
- Hannay, L. M.(1996). The role of images in the secondary school change process.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2(1), 105-121.
- Inbar, D.(1996). The free educational prison: Metaphors and images. *Educational Research*, 28(1), 77-92.
- Jolly, R. P., Zhi, Z., & Thomas, G. V.(1998).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moods metaphorically expressed in pic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2), 358-376.
- Spodek, B.(1985). *Teaching in the early years*(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Spodek, B., Saracho, O. N., & Pertes, D. L.(1998). *Professionalism and the early childhood practitioner*.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Trowbridge, N. T.(1973). Self-concept and socio-economic statu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8(2), 221-233.
- Wang, L.(1998).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reflective practice in a Taiwanese contex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WIS.
- Weber, S., & Mitchell, C.(1995). *That's funny, you don't look like a teacher! Interrogating images and identity in popular culture*. Washington, DC: Falmer Press.
- Weber, S., & Mitchell, C.(1999). *Reinventing ourselves as teachers: Beyond nostalgia*. Philadelphia, PA: Falmer Press.
- Worfel, P. A.(2004). *Image-making: A strategy for promoting congruity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
- Wubbels, T.(1992). Taking account of student teachers' preconceptions. *Teaching & Teacher Education*, 8(2), 137-149.
- Zehm, S.(1999). Deciding to teach: implications of a self-development perspective. In R. P. Lipka, & T. M. Brinthaupt, *The role of self in teacher development* (pp. 36-52). New York: Macmillan.

(2007년 7월 12일 접수, 2007년 8월 30일 채택)